



세대공감 생태꾸러미

자연물로 만드는 우리 가족 작품

[필수] 우리 가족 활동 자랑하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작품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세대공감생태꾸러미, #온라인과학축제, #환경교육)와 함께

창의적인 우리 가족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해 주세요.



※ 생태꾸러미 사업은 **충북자연과학교육원**과 '조물조물 자연공작실' 저자 **이상현**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만들기 영상은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 PLAY** 온라인 지원터 - 영상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솔방울, 나뭇가지, 잎, 씨앗, 돌, 흙,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
곤충이 되고, 새도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이 멋진 재료로 무얼 만들면 좋을까?
곰지락거리며 만들다 보면 자연 속 작은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자연, 함께 시작해 보세요.

자연물로 만들기 of 장점

1.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이 만들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눈으로만 스치고 지나갔던 자연의 모든 사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자연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3. 자연 느낌을 그대로 살린 작품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주변 어디에서나 잘 어울립니다.
4. 만드는 대상에 대한 모습, 자연 생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5. 창의력과 상상력이 향상됩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재료	재료 탐구하기
	[소나무 솔방울] 몸통이나 머리의 재료가 되는 솔방울입니다. 솔의 어원은 수리에서 왔고,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소나무 꽃이 피고 사진처럼 솔방울이 되기까지는 2년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소나무가 있다면 1년생 초록 솔방울을 찾아보세요. 솔방울 속에 남아있는 씨앗도 찾아보세요. 솔씨는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할까요?
	[스트로브잣나무 솔방울] 강아지의 혀를 만들 때 필요한 스트로브잣나무 솔방울입니다. 뾰족 있는 한 쪽지에 5개가 나고 솔방울에는 끈적끈적한 송진이 많이 묻어있어요. 송진이 많은데 어떻게 만들기를 할까요? 오래 말려도 되지만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사용하면 됩니다.

3. 솔방울로 꾸며요

솔방울은 잘라내서 모아보기만 해도 꽃이 됩니다,
비늘잎 속에 떨어진 나뭇잎과 꽃잎을 끼워 꽃을 만들어 보세요,
들꽃을 꽃은 후 물에 담가두면 솔방울이 오그라지며 꽃줄기가 잘 빠지지 않게도 되지요,
늘 보았던 자연재료, 만들어 놀다 보면 자연과 조금은 가까워질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자연 재료로 함께 놀아보세요^^



자연물 만들기 Tip!

1. 재료가 더 필요하다면 집 주변 공원이나 학교에 가서 열매를 찾아 만들 수 있어요.
2. 전자렌지 소독 기능을 사용하여 소독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꾸러미 속 재료는 소독이 이루어진 준비물입니다.
3. 푸들과 나무판을 붙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든 작품으로 놀이를 하다 올려 놓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4.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어른이 함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5. 만들기 전 재료를 살펴보고 오감으로 탐구한 뒤 만드셔도 좋습니다.

꾸러미 속 자연재료를 놀며 배우며

1. 서로 다른 솔방울



솔방울은 나무에 따라 모양이 서로 달라요,
주머니 속에 여러 가지 솔방울을 넣고 촉감놀이 해 보세요,
얼굴에는 보는 눈이 있지만 손에는 느끼는 눈이 있거든요,
가시가 있어 다가온 것은 어떤 것일까?
제일 부드러운 것은?
어,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네?
에이, 끈적끈적해, 송진이 제일 많은 솔방울은 어떤 걸까?
만들고 놀다 보면 서로 다른 솔방울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2. 닮은 듯 다른 나무



← 스트로브잣나무

침처럼 생긴 잎이 뾰족뾰족,
소나무 종류를 구분하고 싶을 때는 잎 꼭지에 난 솔잎의 수를 세어 보세요,
잎이 다섯이면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잎이 두 개면 송편 할 때 쓰는 소나무,
잎이 세 개면 나무줄기에 털보처럼 잎이 난 리기다소나무예요,
스트로브잣나무는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길쭉하고 땅을 향해 구부러진 솔방울에는 잣과는 전혀 다른 씨앗이 들어있어요,
솔씨와 비슷하게 생긴 날개 단 씨앗이지요.

재료	재료 탐구하기
	[오동나무 열매] 강아지의 입, 다리, 귀로도 쓰이는 오동나무 열매입니다. 가구나 악기 만들 때 많이 쓰는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우산으로 써도 될 만큼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지요. 오동나무 씨앗주머니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후~하고 불어보면 눈처럼 날리지요.
	[물오리나무 열매] 꼬리를 만들 때 쓰는 물오리나무 열매입니다. 왜 오리나무일까요? 오리는 2KM인데 오리마다 이정표처럼 이 나무를 심어 오리나무라 부른대요. 오리나무 종류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라 예전 산이 험벗었던 시기에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사방오리나무 열매] 강아지, 머리, 귀, 다리, 꼬리 등을 만들 때 쓰는 사방오리나무 열매입니다. 물오리나무 열매보다 훨씬 크고 남쪽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열매를 쥐고 털어보세요. 남아있는 작은 씨앗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감주나무 씨앗] 눈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모감주나무 씨앗이에요. 노란 꽃이 피고 여름쯤 파리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 동그란 씨앗은 셋으로 나뉜진 포에 붙어 빙글빙글 돌며 날아 이동을 합니다. 스님들은 이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도 했는데 아파트나 공원 근처에서 아직도 붙어있는 열매를 찾아보세요.
	[갈참나무도토리 각정이] 갈참나무도토리 각정입니다. 눈으로 많이 쓰고 소꿉놀이를 할 때 그릇처럼 써도 좋지요. 도토리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으니 미리 구매두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붉은 커피콩] 붉은 커피콩입니다. 동물의 눈으로, 코로, 강아지 발을 만들 때도 사용하지요.
	[메타세콰이어 열매] 담양 가로수 길로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열매입니다. 가로수로 많이 심는 키다리 나무지요. 꾸러미 중 메타 열매를 골라 비늘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세요. 어떤 모양이 숨어 있나요? 메타세콰이어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달리 4월 연두색 새싹이 나올 때 우르르 떨어집니다. 바로 지금쯤이지요. 몇 개 주워다 놀이도 하고 색을 칠해 꾸며도 보세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 1. 오동나무 귀 귀여운 푸들



꼬불꼬불 털복숭이 귀여운 푸들이 생겼어요,
후후~살아있는 건 아니고,
자연이 준 선물을 이것저것 모아 붙여 탄생한
강아지입니다.
어때요, 한 마리 분양 해 줄까요?

순서	그림	만드는 법
1		솔방울 세 개가 필요해요. 솔방울 두 개를 마주 대서 강아지의 몸통을 만든 후 머리가 될 부분을 붙여보세요. 주의를 하며 글루건을 사용하세요. (조심조심) 뜨거운 풀이 묻었을 때에는 얼른 찬물에 손을 담가 주세요
2		강아지의 입을 만들어 볼까요? 오동나무 열매의 뾰족한 부분이 머리 쪽으로 향하게 붙여야 해요.
3		코는 커피콩으로, 혀는 스트로브잣나무 비늘잎을 떼어 붙이면 됩니다. 도토리각정이 속에 콩처럼 생긴 모감주나무 씨앗을 넣어 눈을 만들어요. 눈알을 꾸밀 때에는 목공풀이 편할 겁니다. 오동나무 열매로 귀를 달아주세요. 뾰족한 쪽이 솔방울과 만나야 쉽게 붙고 예쁜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4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오동나무 뾰족한 쪽을 몸으로 향하게 붙이고 끝부분은 커피콩으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꼬리는 물오리나무 세 개를 이어 붙인 후 엉덩이 부근에 붙이면 강아지 완성!!!

함께 만들어 봅시다! - 2. 물오리나무 귀 귀여운 푸들

사방오리열매에 오동나무열매를 위 아래로 끼어넣어요	커피로 코를 사방오리열매로 뒤를 달아주세요. 붙일 때는 힘 있게 밀어 주어야 해요	가늘고 긴 사방오리열매를 골라 목을 만든 후 옆으로 붙인 솔방울에 붙여 주세요
스트로브잣나무 비늘잎 하나를 떼어 혀를 붙여주세요	그림처럼 다리를 달아요	물오리와 사방오리로 꼬리를 만들어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 3. 나만의 창의적 작품 만들기

꾸러미 속 자연재료와 주변의 자연재료를 모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